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15	03. 22	03. 29
대 표 기 도	한명희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한명희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헌 금 위 원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 1.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출7~27장)
- 2.사순절(2월26일~4월9일) -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 3.감사 - 말씀 전해주시는 P. Yesupadam 목사께 감사 드립니다.
- 4.정기 제직회 - 친교실 정리 후 제직회로 모입니다(5번 교실)
- 5.귀국 - 군입대 관계로 양동훈 형제가 귀국했습니다(5일)
- 6.새벽기도 -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 7.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 8.나눔의 시간 - 이효실, 양승원 성도 가정과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첫돌	양서은(10일)
생일	Florian Flömer 성도(13일)
	박에스더 자매(14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기도와 나눔에 힘쓰고 각 기관, 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2. 사순절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143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교독문 125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300장..... 다같이
- 기 도 Gebet김효종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오한솔 자매
- 설 교 Predigt **P. Yesupadam 목사**
- 찬 송 Gemeindelied309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314장(1,2절).....한명희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55장.....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첫돌(양서은)**..... 친교실

헌신의 기도

Nürnberg 출신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Albrecht Dürrer의 예화입니다. Albrecht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인 Hans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하다가 Hans가 먼저 “네가 먼저 공부를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도와줄게. 네가 화가로서 자리를 잡으면 내 학비를 대 줘. 그러면 나도 그 때 그림 공부를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lbrecht가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장을 손에 쥐고 식당에서 일하는 Hans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구석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그림 공부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하느라 손이 굳어져 그림 그리는 일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친구가 화가가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제 바램은 친구가 제 뒤편까지 그림을 그려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본 Albrecht는 자기를 위해 희생해준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친구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그 자리에서 습작을 했습니다. 그림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 친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그림은 Nürnberg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